

#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교과교육 동향

김진숙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kimjs@kice.re.kr

## 1. 머리말

### 북한의 2012년 학제 개편과 후속 교육과정 개정

2017년은 북한의 교육에 있어 중요한 성과가 있는 해라고 선전된다. 2012년 발표한 신학제가 모든 학교급, 학년에 적용이 완료된 첫 학년도인 것이다(통일부, 2017. 3. 29). 북한에서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이 집권한 지 1년도 채 되지 한 이래 1년도 되기 전인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통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라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후속 교육과정(교육강령) 개편을 예고하였다. 후속 교육과정은 다음해인 2013년에 발표되었고, 2014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연차적으로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적용하여, 2017년에는 모든 학교에 적용이 마무리된 것으로 2017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통해 보고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학제 개편안 이후 4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1,500여 개의 학교를 건설하거나 증축하고, 1만 790여 개의 교실들을 신축했으며 수많은 교구비품들을 생산·보장하였다고 선전 홍보하였다. 북한 교육위원회 김승두 위원장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아직 전반적인 중등 일반교육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지지 못하고 있다.”며, 2013년에 개정한 제1차 강령의 후속으로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원리교육화하는 원칙”에서 2017년 현재 제2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을 개발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하였다(『조선신보』, 2017. 4. 12).

김정은 체제 학제 개편안에서 북한의 학교는 유치원-소학교-초급중학교-고급중학교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학제 개편은 1972년의 ‘11년제 의무교육제’, 즉 2-4-6제 중 의무교육을

1-4-6(유치원 중 1년-인민학교 4년-(고등)중학교 6년)제로 정한 지 근 4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 현재 북한 학제는 유-초-중-고의 연한을 2-5-3-3제로 하고, 그중 유치원 1년(높은 반)을 포함하여 초·중등교육 11년까지 전체 12년을 무상 의무교육으로 한다. 북한은 의무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하기 때문에 유치원의 총연한보다는 1년 의무교육과 초·중등교육의 총연수를 내세워 ‘전반적 의무교육 12년제’로 칭한다. 또한 이번 학제 개편 시, 중등학교가 ‘중학교’에서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분리되고, 고급중학교와 별도의 실업계 학교인 ‘기술고급중학교’를 100여 개 개설한 것으로 보도된다.<sup>1)</sup>

남한의 경우 유-초-중-고를 3-6-3-3제로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합 9년을 의무교육으로 하는데, 이에 비하면 북한의 소학교는 남한보다 1년 연한이 적으면서 유치원 1년과 고등학교(고급중학교) 단계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북한의 학제를 남한과 비교한 것은 [그림 1]과 같다.

2013 개정 교육과정<sup>2)</sup>은 2012년에 발표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의 후속 조치이다. 북한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강령’이라고 하며,<sup>3)</sup> 남한 교육부에 준하는 국가수준의 기구인 ‘교육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공적 문서이다. 세계 각국에서 교육과정은 curriculum, framework, program, 요령(要領), 지인(指引), 총강(總綱), 총론(總論)이라는 보통명사를 사용한다(김진숙 외, 2011). 그런데 북한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교육강령’으로 구별하고, 교육강령에 포함된 총론은 과정안, 교과는 교수과정안으로 칭한다.

교육강령은 총론과 교과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고, 총론은 그중 ‘과정안’인데, “학교 전반의 총체적인 학업 진행계획, 즉 학업 진행과정과 학년별 과목 수 및 이수시간 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교과 교육과정은 ‘교수요강’으로 불리며, “학과목의 교수과정 조직과 교수 내용 및 방법을 규제하는 교육강령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정의된다(백과사전출판사, 1995, p.600). ‘과정안’은 총론을 칭하기도 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 및 학교수준의 교육강령 전체를 칭하기도 한다(교육위원회, 2013a; 2013b; 2013c).

본고에서는 2013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교과의 구조와 이를 통해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의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도라고 할 수 있는 편제의 신규 및 남북한 비교를 통해 북한 교과 교육과정의 동향을 살펴보고,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과서 사례를 통해 교과교육 내용의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북한이 전통적으로 교육을 통해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기르고자 교육을 대폭 활용하고

1) 기술고급중학교는 다음과 같이 설립의 근거가 밝혀진다. “새로운 교종인 기술고급중학교를 시범적으로 내오는 데 맞게 일반고급중학교들에서는 중등 일반지식을 위주로 교육하고 기술고급중학교들에서는 일반교육과 함께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에 맞는 기초기술교육을 주기 위한 준비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겠습니다.”(『로동신문』, 2014. 9. 26).  
2) 북한에서 2013년에 발표한 교육강령의 공식 명칭은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이다. 본고에서는 남한에서 201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공식적으로 칭하는 것과 대별되도록 ‘2013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칭한다.  
3) 본고에서는 특별하게 구분할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의 교육강령을 교육과정으로 칭한다.

[그림 1] 남북한의 학제 비교

나이	남한	북한	
17	고등학교(3)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
16		고급중학교, 기술고급중학교(3)	
15			
14	중학교(3)	초급중학교(3)	
13			
12			
11	초등학교(6)	소학교(5)	
10			
9			
8			
7			
6			
5	(유치원/어린이집 3년)	유치원 높은 반(1)	
4		낮은 반	
3			
2	어린이집	탁아소	
1			
0			

모든 교육을 이념화하고 있다는 주지의 사실 외에도 교육학적인 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이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고자 한다.

## II. 북한 2013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

김정은 체제 북한의 2013 교육과정 개정 중 편제 측면에서 교과교육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김일성 가계 이상화의 계보를 잇는 정치사상 교과교육

하나는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정치사상적 교과 및 내용의 확충이다. 정치사상 교육은 별도의 교과, 그리고 모든 교과를 통해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 편제를 통해서도 이 중 별도 교과를 통한 정치사상교육의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1인 독재 및 3대를 잇는 가계 우상화를 위해 북한 특수교과로 과거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 3개 교과(예: 초급중학교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외에 김정은 관련 과목(예: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 김정은 이름을 붙인 4개 교과가 초중고 각 학교급별로 일관되게 교육되고 있다.

이 외에 소학교, 초급중학교 단계의 ‘사회주의도덕’, 고급중학교 단계의 ‘사회주의도덕과 법’, ‘현행당정책’, ‘심리와 논리’, ‘군사활동초보’ 등은 북한사회를 끌고 가는 정치사상 교과를 대표한다. 위의 북한 특수교과가 북한 체제 및 개인 우상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 교과들은 사회주의<sup>4)</sup> 이념과 도덕에 관련되는 내용을 교육하는 교과이다.

북한 소학교를 예를 들어보면, 정치사상 교과는 김일성 가계 우상화 4개 교과와 ‘사회주의도덕’이라 할 수 있다. 이 교과들은 보통 주당 1시간씩 교육되는데, 학년별로 교과가 4~5개에 달하기 때문에 주당 4~5시간, 즉 거의 매일 1시간의 직접적인 이념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표 1> 북한의 학교급별 교과 구성 비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북한 특수 교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어린 시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님 어린 시절,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어린 시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 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혁명활동,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님 혁명 활동,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 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 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혁명 력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님 혁명 력사,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 력사
계	4	4	4
일반 교과	사회주의도덕, 국어, 영어, 수학, 자연, 정보기술, 체육, 음악무용, 도화 공작	사회주의도덕, 국어, 영어, 조선력사, 조선지리, 수학, 자연과학, 정보기술, 기초기술, 체육, 음악무용, 미술	사회주의도덕과 법, 현행당정책, 심리와 논리, 국어문학, 한문, 영어, 력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체육, 예술, 정보기술, 기초기술, 공업기초, 농업기초, 군사활동초보, 자동차(트랙도르) <sup>*</sup>
계	9	12	20

주: 고급중학교 단계에서 ‘자동차(트랙도르)’는 편제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교과목으로 활용되는 선택과목임.

자료: 교육위원회(2013a; 2013b; 2013c).

4) 과거 ‘공산주의도덕’의 교과명하에 내용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같이 사용했으나, 교과 명칭을 ‘사회주의도덕’ 및 ‘사회주의도덕과 법’으로 변경하여 통일하였다.

〈표 2〉 북한 소학교의 정치사상 교과 시간 구성

번호	과 목	학년	1	2	3	4	5
		주수 총시간	18/16	18/16	19/16	18/16	18/16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171	1	1	1	1	1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어린 시절	171	1	1	1	1	1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린 시절	34	1				
4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어린 시절	171	1	1	1	1	1
5	사회주의도덕	171	1	1	1	1	1

## 2.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한 일부 교과 구성

두 번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변화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목된다. 앞서 제시한 학제 개편안에서 초등교육을 기존 4년제에서 5년제로 전환해서 초·중등교육은 11년이 되도록 하고 중등교육 6년을 전기 3년과 후기 3년으로 분리한 점, 교육과정에서는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교육의 기본 소양교육을 강조하는 점,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지향하여 영역 공통의 기초지식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점, 정보기술의 강조로 소학교부터 정보기술이 2년간 필수 교과화되어 있다는 점, 영어교과의 강조로 소학교 4학년부터 2년간 영어가 필수이며 중고등학교에서도 모두 필수이고 심지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국어보다 영어의 시수가 더 많다는 점 등이다.

학교급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먼저 소학교의 경우, 2008년 9월부터 소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영어 및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통일부, 2014), 2013 개정을 통해 시수가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증배되었다. 컴퓨터 또한 ‘정보기술’의 명칭으로 개편되어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에 같은 명칭으로 사용되며, 수업시수는 주당 1시간에서 연간 1주로 집중 이수하는 형식으로 변화되었다. 2013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연, 체육, 정보기술에 적용된 ‘1주’와 같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교수’ 시간이 생긴 것도 블록 스케줄링(block scheduling)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급중학교에서는 ‘외국어’로 칭하던 영어과목을 ‘영어’로 하고, 시수도 2, 3학년에서 주당 1시간씩 증배되었다. 수학은 1, 2학년에서 1~2시간씩 감소되었으며, 과학시수가 대폭 증가되었다. 2, 3학년에서 물리, 화학, 생물로 각각 배우던 과학은 ‘자연과학’의 통합교과로 하여

〈표 3〉 북한 소학교 신규 편제 비교

교과목	학년		1996년~2008년*				2013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2	1	1	1	1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시절	1	1	1	2	1	1	1	1	1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어린시절				1	1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1		
사회주의도덕	2	2	1	1	1	1	1	1	1		
국어	6	6	7	8	7	7	7	7	7		
영어*			1	1				2	2		
수학	6	6	6	6	4	5	5	5	5		
자연	2	2	2	2	1주	1주	2	2	2		
체육	2	2	2	2	2 1주	2 1주	2 1주	2 1주	2 1주		
위생				1							
음악(음악무용)*	2	2	2	2	2	2	2	2	2		
도화공작	2	2	1	1	2	2	2	2	2		
정보기술(컴퓨터)*			1	1				1주	1주		

주: 1) 2013 개정 전까지 1996년 개정 편제를 적용했으나, 일부 과목은 2008년에 개정됨. 괄호 밖은 2013 개정 시 과목명, 괄호 안은 1996년 과목명임.

2) 영어와 컴퓨터는 2008년 9월부터 소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해 옴.

3) 중학교는 1998년에 ‘외국어’ 명칭의 교과에서 영어를 교육했는데, 소학교에서는 2008년부터 적용된 교과명을 ‘영어’로 하고 있음.

4) 2013 개정 시 변화된 부분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볼드표를 함.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2014), p.245; 교육위원회(2013a).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매 학년마다 주당 5시간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초급중학교 1~3학년에 가르치지 않던 컴퓨터는 ‘정보기술’의 명칭으로 매 학년마다 2주씩 가르치게 되었고 실습도 ‘기초기술’ 과목으로 매주 1시간씩 가르치게 되었다. 초급중학교 체육과 정보기술도 소학교와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교수’ 시간을 적용하여 연중 1주, 2주씩 시간을 할당하였다.

고급중학교에서도 초급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외국어’로 칭하던 영어과목을 ‘영어’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시수는 개정 전과 같지만, 상대적으로 국어시간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총시수는 국어보다 많게 되었다.

〈표 4〉 북한 초급중학교 신규 편제 비교

교과목	1996년~2008년			2013년		
	1	2	3	1	2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1	1	1	2	2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활동	1	1	1	-	2	2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님 혁명력사				1	-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1	1	1
사회주의 도덕	1	1	1	1	1	1
국어	5	5	4	5	5	5
한문	2	2	1	-	-	-
영어(외국어)*	4	3	3	4	4	4
역사(조선력사)*	1	1	2	1	1	2
지리(조선지리)*	2	2	2	1	1	1
수학	7	7	6	6	5	6
자연과학				5	5	5
물리		2	3	-	-	-
화학			2	-	-	-
생물		2	2	-	-	-
정보기술				2주	2주	2주
기초기술(실습)*	1주	1주	1주	1	1	1
체육	2	2	2	2(1주)	2(1주)	2(1주)
음악(음악무용)*	1	1	1	1	1	1
미술	1	1	1	1	1	1

주: 1) 괄호 밖은 2013 개정 시 과목명, 괄호 안은 1996년 과목명임.

2) 1996년에 '외국어'로 표기했으나 2013년부터 '영어'로 표기함.

3) 2013 개정시 변화된 부분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볼드표시를 함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2014), p.247; 교육위원회(2013b).

수학은 전 학년에서 1~2시간씩 감소되었으며, 과학시수는 총시수는 같지만 학년별로 물리, 화학, 생물에 할당된 시간이 달라지게 되었다. 컴퓨터는 초급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정보기술'의 명칭으로 매 학년 시수는 약간 감소된 주당 1~2시간씩 가르치게 되었고 실습은 '기초기술' 과목으로 하여 1~3학년 전 학년에서 시수가 대폭 증대되었다. 거의 이념교과에 가까운 '심리와 논리' 과목이 추가되었고, 지역에 따른 선택과목으로 공업(농업)기초가 생기게 되었다. 구 교육과정체제에서의 '음악'은 2013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과 미술을 통합한 교과인 '예술' 과목으로 탈바꿈하였다.

<표 5> 북한 고급중학교 신규 편제 비교

교과목	학년	1996년~2008년			2013년		
		4	5	6	1	2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		2	2	2	3(104)	2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		2	2	2	-	2	4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혁명력사		1			-	1/2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력사					1	1	1
현행당정책		1주	1주	1주	1주(20)	1주	1주
사회주의도덕과 법(사회주의도덕)*		1	1	1	1	1	1
심리와 논리					-	-	1주
국어문학(문학)*		4	3	2	3	2	3
한문		1	1	1	1	1	1
영어(외국어)*		3	3	3	3	3	3
력사		2	2	2	1	1	2
지리		2	2		1	1	1
수학		6	6	6	5	5/4	4
물리		4	4	4	5	4	3
화학		3	3	4	3	4	2
생물		2	3	3	3	3	2
정보기술(컴퓨터)*		2	2	2	2	1	1
기초기술(실습)*		1주	1주	1주	2주	3주	3주
공업(농업)기초					-	-	4
체육		1	1	1	1	1	1
예술(음악)*		1	1	1	1	1	1
제도		1	1		-	-	-
군사활동초보					-	1주(48)	1주(48)

주: 1) 괄호 밖은 2013 개정 시 과목명, 괄호 안은 1996년 과목명임.  
 2) 1996년에 '외국어'로 표기했으나 2013년부터 '영어'로 표기함.  
 3) 고급중학교 2013 개정의 '예술' 과목은 음악과 미술을 포함한 통합교과임.  
 4) 2013 개정 시 변화된 부분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볼드표시를 함.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2014), p.247; 교육위원회(2013c).

### 3. 수학 및 과학을 강조한 시간 구성

세 번째는 수학과 과학 교과목의 강조이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의 주요 교과 시간에서 대체로 북한이 남한보다 시수가 많지만, 수학, 과학의 경우는 보다 큰 차로 북한의 시수가



많다. 학교급별로 주요 교과들의 시간 구성을 남한과 비교하면 <표 6>~<표 8>과 같다.

북한에서는 예체능분야 및 자연과학, 외국어분야에 있어 우리의 영재교육에 해당하는 ‘수재교육’을 시도해 왔으며, 학제 개편 이전부터 ‘제1 중학교’를 설립하여 자연과학분야의 수재교육을 해왔다. 제1 중학교는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옹계 선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라.”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984년 평양에 처음 설립된 후 이듬해 남포, 개성, 청진,

<표 6> 초등학교 단계 주요 교과<sup>1)</sup>의 남북한 교과시간 구성 비교

남한(6년제) <sup>2)</sup>								북한(5년제)						
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계
국어	7	7	6	6	6	6	1,264	국어	7	7	7	7	7	1,197
수학	4	4	4	4	4	4	800	수학	4	5	5	5	5	821
영어	-	-	2	2	3	3	340	영어	-	-	-	2	2	136
과학 / 실과 <sup>4)</sup>	과학 <sup>-3)</sup>	-3)	3	3	3	3	504 (슬생 96 포함)	자연	1주	1주	2	2	2	250
	실과	-	-	-	2	2	136	정보 기술	-	-	-	1주	1주	52

주: 1) 주요 주지교과 중 사회과는 북한에서 이념교과이므로 여기에서는 비교하지 않음  
 2) 남한은 편제표에서 2년의 학년군별 연간 시수만 제시되나, 이 연간 시수를 산정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본 주당 시수를 제시함.  
 3) 남한의 1, 2학년은 과학과 사회가 통합된 ‘슬기로운 생활’ 교과를 통해 과학을 배우도록 함.  
 4) 과학/실과로 통합기술된 시수를 교과군 통합 이전에 배정되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교과수로 환산함.

<표 7> 중학교 단계 주요 교과들의 남북한 교과시간 구성 비교

남한					북한							
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국어	5	4	4	442	국어	5	5	5	510			
수학	4	4	3	374	수학	6	5	6	578			
영어	3	3	4	340	영어	4	4	4	408			
과학 기술· 가정 정보	과학	3	4	4	374	자연과학	5	5	5	510		
	기가	2	3	3	272		680	정보 기술	2주	2주	2주	192
	정보	1	-	-	34			기초 기술	1	1	1	102

주: 1) 남한은 편제표에서 2년의 학년군별 연간 시수만 제시되나, 이 연간 시수를 산정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본 주당 시수를 제시함.  
 2) 과학, 기술·가정, 정보 교과군으로 통합기술된 시수의 기준이 된 주당 교과별 시수로 환산함.

〈표 8〉 고등학교 단계 주요 교과 필수과목\*의 남북한 교과시간 구성 비교

남한				북한				
교과	필수 이수단위		계	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국어	국어	10단위 (주당 5시간)	170	국어	5	5	5	510
수학	수학	10단위 (주당 5시간)	170	수학	6	5	6	578
영어	영어	10단위 (주당 5시간)	170	영어	4	4	4	408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	12단위 (주당 6시간)	204	물리	5	4	3	331
				화학	3	4	2	248
				생물	3	3	2	220
기술· 가정				정보 기술	2	1	1	111
				기초 기술	2주	3주	3주	272
1,182								

주: \* 남한 고등학교의 1단위는 1학기(17시간)에 주당 1시간씩 수업하는 분량을 말함. 대개 2개 학기, 즉 1년에 걸쳐 편성하므로 10단위면 주당 5시간씩 1, 2학기 연속으로 배우는 수업이 됨.

해산 등 각 도 소재지와 특별시로 확대되었다. 1999년에는 전국 시군·구역에 1개교씩 추가 신설하도록 확대되었다(통일부, 2014). 과학기술의 강조는 1990년대 후반 이래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의 구호 아래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강화되었다. 북한당국의 수재교육 강화는 “정보산업시대 과학기술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첨단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으로 경제건설과 국가발전을 기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통일부, 2014).

북한에서 수학과 과학 교과는 초·중등 교육 전반에 걸쳐 강조되며, 초등에서 중등 후반부로 갈수록 더 강조되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북한의 교육시수의 총량은 전반적으로 남한보다 많은 편이지만, 교과를 통한 학습보다는 우리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하는 비교과활동, 즉 ‘과외활동’ 시수가 많고 교과의 총량은 비슷한 편이다. 전체 교과시수 중 두드러지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 교과이며 이 중 수학과 과학 시수는 남한이나 다른 국가들의 국제적 동향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수학은 북한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는 수업시간이 많이 할당되어

있다. 북한 소학교에서 수학은 주당 4-5-5-5-5시간, 초급중학교 6-5-6시간, 고급중학교는 6-5-5시간이다.

남한의 수학은 연간 총량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주당 시수로 환산하면, 초등학교 주당 4-4-4-4-4-4시간, 중학교 4-4-3시간, 고등학교 5시간 이상이다. 주당으로 보면 초등학교 2학년부턴 전 학교급과 전 학년에서 북한 학생들은 남한 학생보다 주당 1시간 내지 2~3시간 더 수학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다. 학교급별 교과시간 수의 총량은 초등학교급에서 북한이 5년 학제로 1년 적음에도 수학수업의 총량은 남한보다 21시간이 많으며, 중학교급에서는 204시간이, 고등학교급에서는 408시간이 많아서, 초-중-고 전체 학교급에서 633시간의 격차가 발생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북한은 1년의 수업주수가 1, 2, 3학년이 각각 30, 28, 23주이고, 남한은 전 학년 공통 34주이며, 남한은 최소 필수단위만 제공하므로 실제 대부분의 학교가 이보다 수업을 더 많이 할 것임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수학수업의 남북한 격차는 북한의 적은 수업주수에 비하면 적은 편이고, 남한의 실제 수업시간에 비하면 격차가 많은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해석된다.<sup>5)</sup>

과학의 경우 북한은 초등학교급에서는 시수가 적고, 중등학교급에서 점차 많은 학습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 소학교에서 과학은 지리과와 통합교과인 ‘자연’시간의 절반 정도이고, 초급중학교는 ‘자연과학’, 고등학교는 물리, 화학, 생물 3개과로 구분된다. 주당 시수는 소학교는 주당 1-1-1-1-1시간, 초급중학교 5-5-5시간, 고급중학교 물리, 화학, 생물을 합하여 11-11-7시간이다. 남한의 과학은 초등학교 주당 2-2-3-3-3-3시간, 중학교 3-4-3시간, 고등학교 6시간 이상이다.

과학은 주당으로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남한이 매 학년 1~2시간씩 많이 배우지만 중학교부터는 학년당 북한 학생들이 남한 학생보다 주당 1~2시간, 고등학교로 오면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주당 5시간, 2, 3학년에서는 주당 최대 11시간을 더 배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급별 교과시간 수의 총량에서 과학수업의 총량은 초등학교급에서는 남한이 379시간이 많지만, 중학교급에서는 북한이 남한보다 136시간, 고등학교급에서는 595시간이 많아서, 초-중-고 전체 학교급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352시간 더 많이 배우는 격차가 발생한다.

또한 과학과 함께 기술교과 교육과정이 남북한 모두 존재한다. 남한은 초등학교에서 실과, 중고등학교에서는 기술·가정 교과로 칭한다. 북한은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에서 공히 ‘정보기술’ 교과가 있으며, 소학교와 초급중학교에서는 연중 1주 내지 2주씩 집중이수하도록 하고 고급중학교에 오면 주당 1~2시간 교수하도록 하며, 초급 및 고급 중학교에서는

<sup>5)</sup> 북한의 고급중학교는 남한보다 수업주수가 적음에도 총수업시간 격차가 크므로, 매우 큰 차이임을 말해 준다. 다만, 남한은 최소 필수 이수단위만 국가에서 제시하므로, 수학 수업을 이보다 더 많이 하는 학교와 학생이 있음도 가정해야 한다.

‘기초기술’교과가 있어 남한의 기술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한다.

요컨대 수학, 과학 모두 북한 학생들은 남한 학생보다 많이 배우며, 고등학교에서는 문이과 구분도 없고 과학부문의 필수 3과목인 물리, 화학, 생물을 각각 매주 2시간 내지 5시간씩 배우고 있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4개 과목을 선택하여 배우는 남한의 이과과정 학생보다도 많은 내용을 모든 학생이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북한 교과교육 내용의 동향

앞서 북한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도라고 할 수 있는 편제의 신규 및 남북한 비교를 통해 북한 교과 교육과정의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이 제시되는 면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교과교육의 내용은 교육과정, 교과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남한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제시하면서도 최근 학교수준, 교사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에게 의미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할 것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북한 역시 2013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4) 교원들은 교수준비를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 교수내용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정통하여야 한다. 학생료해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수진도표를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교육위원회, 2013a)와 같이 교사의 학생요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수준의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교육과정이 근간이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남북한이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교과교육 내용은 사실 교과별 국제적 동향과 자국 내 교육의 흐름에서 파악해야 하므로 교과 공통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다만, 북한 교과교육은 앞서 편제 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치사상 교육을 모든 교과에 제시하는 방법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 및 교과의 내용 제시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 1. 정치사상으로 포장된 교과 교육과정

북한 교과교육을 교과서를 통해 접할 경우, 어느 교과이던지 김일성 가계 이상화로 점철된 것을 볼 수 있다. 교과 교육과정에서도 이 현상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정치사상적 언급이 모든 교육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남한의 ‘성격’에 해당하는 ‘머리말’, ‘교수목적’, ‘교과서

〈표 9〉 남북한 교과 교육과정의 항목 비교 및 정치사상 교육이 제시된 항목

남한 교과	북한 교과		
	항목	내용	역할
성격	머리말	김일성 교시 문구로 시작	교과교육의 정당화
		김정일 애국주의, 주체혁명위업, 김정은 선군혁명투사	
목표	교수목적	김정일 애국주의	교과 본연의 내용
	교수목표	x	
내용 (내용체계·성취기준)	교수내용 (범위와 수준·도달기준)	x(o 또는 △)*	
-	교과서 집필에서 지켜야 할 원칙	백두산 절세위원들의 교양 등	교과서 기준
방법	학과목 교수에서 지켜야 할 원칙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충실성 교양 등	교수기준
평가	학업성적 평가원칙	x	학생 평가기준

주: X 표시된 부분은 김일성 가계우상화와 이념교육이 없는 부분임. 교과에 따라 일부 포함된 경우도 있음. 정치사상 교과는 교육내용도 정치 사상을 주된 내용으로 함.

집필에서 지켜야 할 원칙’, ‘학과목 교수에서 지켜야 할 원칙’ 등이다. 그러나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과교육의 본령인 내용 기술에서는 이념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과의 내용에서는 북한 고유의 이념교육 요소를 제외하고도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통합의 시발점을 찾기가 용이하다(김진숙 외, 2016).

북한 교과 교육과정의 머리말, 교수목적은 예시6)에서와 같이 해당 교과를 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를 정당화하는데, 우선적으로 김일성 교시, 김정일, 김정은의 발언 등을 활용하여, 교과의 정당화뿐 아니라 모든 교과를 통해 김일성 가계 우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 2. 내용 기술

### 가. 성취기준식 내용 기술—보다 구체적인 것을 적시하는 설명

6)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초등교육과 중등일반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사물현상의 일반적 개념과 본질, 그 변화 발전법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며 특히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같은 기초 과학분야의 일반지식을 가르치는 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 『김일성전집』, 제64권, p.32.

<표 10> 남북한 교과 교육내용의 진술의 비교사례

	남한	북한		
	성취기준	학년별 범위와 수준*	내용 분야별 범위와 수준	도달기준
국어	[4국01-03]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듣] - 수업에서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 원인과 결과, 론거를 리해 할수 있도록 한다.	[듣] - 설명과 질문, 대화 등 여러 가지 말을 듣고 문제점, 내용차례, 론거,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한다.	- 설명과 해설(700~800정도)을 듣고 문제점과 내용, 차례, 론거를 리해하고, 질문을 2개 이상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자료(여휘, 특징, 수자, 날짜, 실례 등)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지리	성취기준	학년별 범위*	수준*	도달기준
	[4사03-01] 지도의 기본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지역 지도에 나타난 지리 경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한다.	[3학년 주제 2.생물과 환경] - 동서남북 4방위를 알도록 한다. - 임의의 장소에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한다.	- 좌우팔을 벌리고 서서 오른팔, 왼팔의 방향이 동쪽과 서쪽이고 앞쪽과 뒤쪽이 북과 남이라는 식으로 동서남북의 자리관계를 가리킬 수 있도록 한다. - 해가 뜨거나 질 때 해를 기준으로 하여 동서남북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한다.	4방위의 방향과 방위판정법을 알고 실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 \* 교과별로 '학년별 범위와 수준'은 공통으로 있으며, 범위와 수준이 별도로 또는 같이 기술됨. 국어과는 '내용분야별 범위와 수준'이라고 하여 각 영역별 범위와 수준이 따로 기술됨.

자료: 교육부(2015); 교육위원회(2013a).

남북한 교과 교육과정을 비교함에 있어 공통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는 최근 교육과정 개정에서 양자 모두 교육내용을 '성취기준'식으로 기술했다는 점이다(김진숙 외, 2016). 성취기준식 내용 기술은 교육내용을 특정의 교수 요목, 즉 교육내용의 개념(예: 식물의 광합성)이나 명제적 지식(예: 빛은 직진한다)으로 서술하지 않고, 학습자의 행동을 술어로 하여 “~를 이해한다.”와 같이 기술한다는 점이다. 우리말의 특성상 주어는 생략하는 것이 공통적이다.

남한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오면서 아예 교육내용을 '성취기준'으로 명명하게 되었으며, 북한은 '범위와 수준'에서 해당 교육내용을 성취기준식으로 진술한 후, 요약적으로 학년별 '도달기준'으로 다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남한과 비교하면 여러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남한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많은 반면, 북한은 단순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성취기준을 기술한 특징이 있다.

#### 나. 수업시간 수에 비해 적은 학습량, 쉬운 공부—나선형 교육과정

앞서 주요 교과의 남북한 시수 비교에서 북한의 교과시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김진숙 외(2016)의 분석에 따르면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즉 학생의 실제 학습량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적 비교로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의 학년별·영역별 성취기준의 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교과 교육과정이 남한과 마찬가지로 성취기준식으로 제시되지만, 구조적으로는 ‘학년별 범위와 수준’, ‘도달기준’ 등 두 가지로 제시된다. 도달기준만 보면 북한의 성취기준이 1~2학년 14개로 남한의 25개에 비하면 적지만, 학년별 범위와 수준은 1~2학년 62개가 되기 때문에 남한의 성취기준의 수보다 월등히 많다.

북한의 학년별 성취기준의 수가 남한에 비해 많은 것은 남한의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북한에서는 상세하고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흔히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설명되는 사례이다.

〈표 11〉 남북한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수 비교: 초등학교

남한(2015)				북한(2013)										
	1~2학년	3~4학년	5~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학 <sup>1)</sup>	도 <sup>2)</sup>	학	도	학	도	학	도	학	도
				글자교육	5	2								
				글씨쓰기교육	3	0	2	1	3	1				
듣기·말하기	6	5	7	듣기교육	2	1	4	1	4	1	7	1	8	1
				말하기교육	6	1	11	1	10	1	11	1	10	1
읽기	5	5	6	읽기 및 쓰기 교육	2	2	9	3	11	4	11	4	13	4
쓰기	5	5	6	글짓기교육			7	2	8	1	10	1	8	1
문법	4	5	6	기초원리 지식교육	4	0	7	0	8	0	7	0	9	0
문학	5	5	6											
합계	25	25	31	합계	22	6	40	8	44	8	46	7	48	7

주: 1) 학년별 범위와 수준임.

2) (학년별) 도달기준임.

자료: 김진숙 외(2016), p.164.

〈표 12〉 남한에 비해 상세하고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북한 성취기준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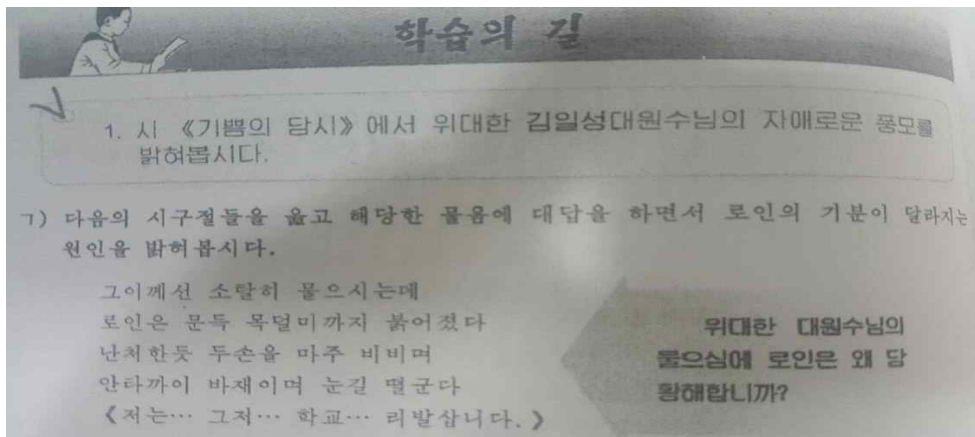
남한(2015)	북한(2013)
[1~2학년 쓰기] 글자를 바르게 쓴다.	[1학년 글씨쓰기교육] - 우리 글자를 필순을 정확히 지켜 쓸 수 있도록 한다. 기 본획, 세운 글자, 눕힌 글자, 받침 없는 글자, 받침 있는 글자들을 글씨쓰기 규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한다. - 글자를 쓸 때 정확한 몸자세를 취하기, 연필하기, 글씨쓰 기, 도구다루기에 익숙되도록 한다.
[1~2학년 듣기·말하기]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2학년 말하기] 대상에 이르는 인사말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한다. [3학년 말하기] 상황에 따르는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3. 교과서—효과적인 이념 교육과 교과교육의 결합체

북한의 교육과정 문서에는 총론, 교과를 통한 교수학습, 교과서 집필방법,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예시가 제시된다. 교수 학습방법과 교과서 집필방법은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교과서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서 집필방법을 구현하여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 튼나는 대로 이념교육적인 내용이 삽입되거나 소재, 삽화, 지문 등으로 활용된다.

[그림 2]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교과서



자료: 교육도서출판사, 『초급중학교 국어3』, 2015, p.10.



이들테면 교과서에서 첫 페이지는 이 교과를 왜 배우는지에 대한 머리말 성격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직접 인용문<sup>7)</sup>을 통해 교과를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전혀 교과내용과 관련이 없는 이상화 내용이 교과서의 지문으로 [그림 2]와 같이 제공된다.

#### 4.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구체적인 방법 제시와 철저한 시행

북한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수 학습방법은 ‘학과목 교수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서 제시된다. 여기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교과별 교수학습의 기준이 제시된다.

이들테면 <표 13>의 영어과에서 앞부분은 이념교육의 도구로서 영어과를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후반부는 영어 기능, 연습, 언어 활용능력을 강조하며, 남한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하는 ‘과외활동’의 한 영역인 ‘과외학습’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 교육과정에서는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예시가 함께 제시되고 강조된다. 평가는 총론에서 교과 공통으로 지침이 제시되고 각 교과에서도 제시된다. 학교에서는 개별 교사가 아닌 학교가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학교학업성적평가위원회’를 두고 학교단위에서 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학업성적평가는 학교학업성적평가위원회의 지도 밑에 진행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으로 ① 학교학업성적평가위원회는 학기, 학년 말마다 교장을 책임자로 하여 5~7명으로 구성하며, ② 학교학업성적평가위원회는 교원들의 학업성적 평가정형을 장악 지도한다(교육위원회, 2013c).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는 수업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수업시간에서 별도로 선정하도록 하며, 수행평가 및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교과별 ‘학업성적평가원칙’을 통해 평가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침을 내리고 있으며, <표 14>가 그 예이다.

<표 13> 북한 교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의 예: 고급중학교 영어

	내용
북한 교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고급중학교 영어)	- 영어교수를 통하여 학생들을 김정일 애국주의로 철저히 무장시켜 부강조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높은 자각을 가지도록 교수의 당정책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 <중략> - 영어기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습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그것이 학생들의 종합적인 언어 활용능력을 키워 주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며 과외학습과 연속과정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하략>

7) 초급중학교 국어의 령마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언어학부문에서는 우리말과 글의 우수성을 더욱 빛 내이며 사회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잘 풀어야 합니다.”(교육도서출판사, 『초급중학교 국어3』, 2015).

〈표 14〉 북한 교과 교육과정 ‘학업성적평가원칙’의 예- 고급중학교 ‘화학’

	내용
북한 교과 교육과정 ‘학업성적평가원칙’ (고급중학교 ‘화학’)	<p>- 평가내용은 품성과 태도, 지식과 기능, 능력 등이다. &lt;중략&gt; 교원은 학기, 학년말 시험에 의한 평가와 평상시 평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학생 자체평가와 호상평가를 서로 결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는 시험과 실천실기 검열형식으로 진행하며 그 비중을 5:5로 한다.</p> <p>&lt;중략&gt; 탐구능력, 창조적인 응용능력 교원은 학생들로 하여금 물질탐구 활동과정에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과 실험설계, 조사연구, 실험실기, 문제해결 능력을 점차 형성시키며 수감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결론을 얻어 발표, 교류하는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양초의 불타기실험》에서 다음과 같이 탐구 활동을 조직하고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관찰 혹은 생활경험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문제에 근거하여 가설을 제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p>

## IV. 평가 및 전망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에는 집권세력이 향후 그 공동체를 어떻게 끌어가려고 하느냐의 비전과 전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변동 후에 교육과정 개정을 포함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하에 이루어진 학제와 교육과정 개편 속에서 교과교육의 동향을 소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 김정은 체제가 추구하는 변화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과거 북한의 교과 교육과정 문서가 소개되지 않고 교과서 그리고 총론 편제 정도가 소개되었을 때 북한 교육에 대해서는 이념으로 점철된 교육 정도로 이해된 측면이 있었다. 본고에서 교과 교육과정 문서와 교과서 분석을 통해 파악한 북한의 교과교육 동향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교과는 이념적인 국민의 교화(indoctrination) 및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이를 위해 김일성 가계 이상화 및 이념화용 별도 교과가 있고 새 교육과정에서 김정은까지 확대되었다. 일반교과에서는 교과의 정당성 확보, 교과서 및 교수학습 과정 전반을 통해 이념으로 포장된 교육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최근 교과서에서는 과학시간에 핵, 미사일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그림 3]과 같이 가르치기도 한다.

둘째, 북한의 교육은 교육의 지향점, 교과 편제, 교육내용, 교육 방법 및 평가 등 여러 가지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과거 김정일 시대인 1994년 ‘실리주의’ 정책을 표방한 이래로 보다 더 국제적인 표준에 맞도록

[그림 3] 북한 고급중학교 물리교과서



자료: 「RFA」, 「북, 학생들에게 핵무기·미사일」, 2017. 4. 8.

했다. 학제 개편을 통한 초등교육의 연한 확대, 중고등학교의 분리 및 일부 고등학교의 지역별 선택과목 도입 외에 영어, 정보기술의 강조, 소학교의 사회와 과학 통합교과로서의 ‘자연’, 중학교 단계 과학과목의 통합교과로서의 ‘자연과학’ 등 통합교과체제 도입, 1주 집중교수 등 교수 학습 및 평가에서도 학습자의 수행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 수학과 과학 교과 of 강조이다. 편제와 시간 배당 측면에서 남한과 비교할 때 북한 학생, 특히 중등학교 학생들은 매주 1~2시간 이상, 고등학교에서는 과학을 2~5시간 이상 많이 배우고 있다. 내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비교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주요 교과 중에서 수학과 과학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가 과학기술,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역량 강화라는 방향을 향해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일관된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교과교육 내용 전달의 효율성이다. 북한 교과교육의 내용은 남한과 비교하면 시간은 많이 책정했지만, 배울 내용은 적고, 배운 내용을 철저한 평가를 통해 이수, 미이수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평가된다. 교육과정 개정 시 교과 간 시수 배정방식 등에서 흔히 ‘교과 이기주의’로 칭하는 교과 간 갈등이 존재하는 남한에 비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것을 당이 결정하고, 고등학교에서 거의 전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이 역설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배경일 것이다.

결국 북한 교과교육의 효율성은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북한 학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남한에서 많은 학습량과 경쟁으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의 경험과 대비된다. 탈북학생들은 북한 학교의 장점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학생 개개인을 잘 챙겨 주며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정성을 다해 가르쳐 주는 점”이라고 응답하였다(김진숙 외, 2016). 또 전반적으로 재미있고 유쾌하며, 수업시간이 짧고 공부가 이해하기 쉬운 점, 시험이 주관식이어서 학생의 실제 실력을 알 수 있는 점, 경쟁이 아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친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점 등이 좋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북한에서 대학 진학률이 낮아 학업에 대한 동기 유발이 되지 않고, 여차피 교사들도 높은 수준으로 독려하기보다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는 점 또한 주요한 배경요인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기억 외에 획일화된 체제하에 교사의 체벌, 학생의 노동 투입 등의 기억이 탈북 학생들에게 학교의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분석하고 평가한 바에 따르면, 북한 교과교육의 동향은 북한 교육, 북한체제 동향의 일면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체제 존립과 유지의 과제를 갖고 있는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교육과정은 세계적으로 독특한 필수교과 중심, 이념화 교육의 틀 속에서도 수학과 과학의 강조, 영어 및 정보 과목의 투입, 선택과목 도입 등 생존을 위한 변신이 도모되고 있다. 북한 교육의 체제가 변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교과교육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남한 및 세계 동향과 같이 학생의 행동 변화를 중심으로 교과 교육내용을 기술하는 ‘성취기준’식 내용 진술, 학생의 수행을 강조하는 평가에서의 동향은 북한 교육에서도 미미하게나마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다고 전망된다.

## 참고문헌

- 김진숙·김민성·박창언·이미경·강보선·박수련,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 II: 총론, 국어, 사회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RRC,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년 제2호, 2016.
- 김진숙·최정아·지혜영·김주현, 「국가 교육과정 총론 항목의 제시 방식에 대한 국제 동향 분석」, 한국교육과정학회, 제29권 제3호, 2011, pp.49~73.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15.
-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소학교)」, 교육위원회 주체 102, 2013a.
-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교육위원회 주체 102, 2013b.
-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고급중학교)」, 교육위원회 주체 102, 2013c.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995.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전집』, 제64권, 2006, p.32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북한이해』, 2014.
- 통일부, 「北,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전면 실시 발표 및 김정은의 '후대사랑' 선전」, 『북한 동향』, 2017. 3. 29

### <언론 보도>

-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2012. 9. 26.
-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의 집행 정형총화에 대하여」, 2014. 9. 26.
- 『조선신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회의 보고」, 2017. 4. 12.
- 『RFA』, 「북, 학생들에게 핵무기·미사일」, 2017. 4. 8.

### <관련 자료>

- 교육도서출판사, 『초급중학교 조선지리3』, 2015.
- 교육도서출판사, 『초급중학교 국어3』, 2015.